

EU 通貨統合에 관한 小考

李 庸 完*

| 목 차 | |
|---------------------------------------|----------------|
| I. 서 | IV. 통화통합과 EU경제 |
| II. EU 통화통합 출범의 의의 | V. 결 론 |
| III. EU 통화통합효과에 대한 개념적 체계 와 통화통합전략 | |

I. 서

세계경제의 지역별 블록화 추세에서 통화통합은 이제 경제통합의 중요한 부분으로 역사속에 등장하게 되었다. 유럽통화통합은 새로운 시도는 아니며 19세기부터 이미 여러형태로 추진되어 왔다¹⁾.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는 다소간 다른 새로운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은 80년대말 이후 단일통화의 창출을 목표로 통화통합의 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1991년 12월에 체결되어 1993년 11월에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Maastricht) 조약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1999년 1월 1일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통화인 유로(Euro) 화가 출범하였다.

단일통화(유로화)의 출범은 문자 그대로 통화통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럽통합의 역사에 있어서 70년대말의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의 창설이래 유럽통합의 최대 견인차로서 EU의 통합전략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왜 지금 유럽이 단일통화의 창출을 통한 통화동맹이라는 역사적 실험을 선택하게 됐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이 통화동맹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질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고 유럽 통화통합의 완성, 즉 유로화의 도입이 유럽경제에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해서 유럽경제에 기여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그것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1) 1865년에 라틴통화동맹(Latin Monetary Union; LMU)이 설립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Papadia, F & Saccoumanni, F. "Europe's Stubborn Quest for Monetary Union", Thirsty Years of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Longman, New York, 1994. pp.57-68 참조.

II. EU통화통합 출범의 의의

1. EU통화통합의 전개 - 정치적 의지 -

EU의 단일통화(유로화)의 도입은 예정대로 1999년 1월 1일에 이루어졌다. 현재 유럽통화동맹(EMU)에 참여한 11개국²⁾의 경제규모는 인구 2억9천만명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4%, 세계무역의 18.6%를 차지함으로써 미국에 버금가는 대외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권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통화통합의 역사는 1979년 유럽통화제도(EMS) 발족 이전인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대 유럽통합의 추진의 대표적인 인물은 쿠텐호브-카레기(R. Coudenhove-Kalergi)로서, 그는 1923년에 제안한 '범유럽(Pan-Europa)'에서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연방제를 구상하였다. 쿠텐호브-카레기(R. Coudenhove-Kalergi)가 범유럽운동을 전개한 이래 대략 70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의 통합사상이 계승되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 연합이 단순한 fashion으로서가 아니라, 사명감(mission)과 열정(passion)으로 지탱된 운동이기 때문라 할 수 있다³⁾. 쿠텐호브-카레기가 범유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몰락한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이유는 석탄, 철강 자원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간에 반복이 거듭되는 전쟁으로 유럽 지역을 피폐화시켰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유럽이 소국가들로 분단되어 있어서 과학기술의 진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유럽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의 발발을 억제시켜 과학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의지는 2차대전 이후 Monnet 등의 통합 추진론자에 의해 계승되었고,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 및 유럽 경제공동체(EEC)가 창설되기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EEC의 주요한 목적은 공동시장의 창설이며, 로마 조약이 조인된 후 10년이 경과된 1968년에 관세 동맹이 완성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그 후 다음 단계인 통화 통합 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69년 헤이그 정상회담에서 당시 독일의 수상이 경제·통화동맹(EMU) 구상을 발표했는데 소위 「One Market, One Money」의 이념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관세 동맹의 완성으로 경쟁 조건은 확립되었으나 환율의 변동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유럽 경제를 경쟁적 체질로 변혁시키려는 공동시장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가능한 한 공동 시장은 통화까지도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2) EU 15개국 중 EMU 참가를 원치 않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임

3) 中島精也, "EU通貨統合をめぐる最新の情勢", 「世界經濟評論」, 1998. 7 p. 27.

브랜드 구상을 채택, 발족시킨 베르너(Werner) 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10년후인 71년 통화 통합을 완성시키자는 목표로 유럽통화제도(EMU) 제 1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년후의 닉슨쇼크, 73년에 제1차 석유파동이 연발하여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그 해결 방안으로 제 2단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해결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EMU는 자연 소멸되었다. 그러나 EMU의 좌절에도 유럽은 결코 통화 통합을 포기하지 않았고 통화통합에 대한 열정은 79년에 유럽 통화 제도(EMU)와 설립으로 중단됨이 없이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왔다.

이러한 EMU 구상은 89년에 당시 EC위원장이었던 돌로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위원회가 「유럽 공동체에 있어서 경제·통화동맹에 관한 보고서」, 소위 돌로르 보고서의 발표로 인해 부활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통합 시장의 완성이 깊게 관여되어 있다. 즉, 공동 시장은 68년 관세 동맹의 완성으로 달성되었다고 인식되어졌으나 각국의 비관세 장벽에 의해 공동시장이 분리되어져 있음이 85년 역내 시장백서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따라서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의해 실질적 의미의 통합된 공동시장을 완성시키려는 목적에서 86년 유럽 단일의정서(SEA)가 조인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이것에 의해 92년 말에는 통합시장 완성이 예정대로 완성되었으며, 여기에서 다시 「One Market, One Money」의 이념이 부활하면서 돌로르 보고서에 의한 EMU 구상이 재등장하게 되었으며, 돌로르의 보고서 내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결실을 맺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그전문에서 "... 하나의 안정된 단일통화를 포함하여, 하나의 경제·통화동맹을 수립하기로 결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역내 시장통합과 결속되어 EU통화 통합은 순조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92년 가을부터 시작된 유럽의 통화위기는 통화통합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흐름으로 바뀌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통화정책 당국간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통화통합에 대한 비판론의 주요 이유는 고용과 경기(景氣)때문이었다'. 첫째는 EU에서는 대량 실업이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95년 가을 프랑스 공무원 파업과 같은 정부비판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통화통합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정치과정론적인 인식이며, 둘째는, '통화통합의 모순'의 인식이다. 현재 프랑스가 대량실업을 안고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력에서 우월한 독일과 고정환율제를 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면에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안과 함께 통화통합을 단념하고 재정면에서 경기진작을 고려하는 편이 프랑스 국민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케인즈 경제학의 정책론적 인식이다.

그러나 통화통합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통화통합에 대한 EU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이다. 여기에는 통화통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의무 이상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중심축인 통화통합을 실현할 수 없다면 EU의 위신이

4) 田中素香, "通貨統合への道を進むEU", 「世界經濟評論」, 1996. 12. pp. 8-15

손상되고, 또한 EU는 통합목표를 상실한 통합 深化을 향한 행동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또한 통화통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시장의 불신으로 독일의 마르크와 프랑스의 프랑 그리고 여타 유럽 통화에 대한 비대칭적인 외환투기 등의 형태로 통화혼란이 일어나고 EU경제는 혼란해 진다는 것이다.

EU의 위신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의지'와 관련지어진다. 통화통합에 관한 EU국가들의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프랑스의 파업이나 독일국민의 통화통합 비판에 대해서도 동요하지 않았던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의지'는 EU통화통합을 논함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며 경제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확고한 '정치적 의지'가 통합을 진진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EMU가 경제적 프로젝트인 동시에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다.

2. 국제통화로서 유로화 출범의 의의

향후 유로화가 국제통화의 하나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유로화가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기능으로서 계산단위, 지불수단, 가치보장수단 등을 들 수 있으나 국제통화라고 하면, 이러한 일반적 기능은 물론 국가간의 경상 및 자본거래에 있어서 민간·공공부문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는 통화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여기에 어떤 통화가 국제통화로 채택될 경우 그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익을 누리게 된다. 즉, 첫번째의 이점은 발행특권(seigniorage)의 확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통화발행특권이란 흔히 불환지폐의 발행에 의해 실물자원의 입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질적 의미의 특권은 경상수지의 적자가 많아도 그에 따른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미국만이 그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두번째의 이점으로는 국제통화 발행 국가의 가계 및 기업은 환위험으로부터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환율변동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번째의 이점은 국제통화국의 금융정책당국은 국제수지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국내정책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후의 국제경제상태를 대충 일관해 보면 달러가 국제통화로서 사용되는 체제가 유지되어 왔었고 그 결과 미국은 이와 같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로화가 얼마만큼 강한 통화가 되느냐 하는 점은 통화통합이후의 경제상태, 재정적자의 삭감 그리고 독립적인 금융정책의 수행여부 등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 달라 질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국제통화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21세기에는 국제통화의 지위는 달러와 유로화가 될 것이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두 개의 통화가 서로 대항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국제통화로서의 유로화에 거는 기대는 특히 유럽위원회의 자료⁵⁾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 금융자본 거래면에서 유로화의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10년 동안, 이미 달러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투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점유하고 있는 달러의 비율은 1988년 시점에서는 약 50%였으나, 95년에는 39.8%로 떨어졌고, 이에 비해 유럽 통화 전체의 비율은 88년의 1/4에서 1/3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향후 세계의 포트폴리오를 점유하는 유로화 표시의 자산은 비약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환risk가 소멸되기 때문에 연금 등의 투자 자금의 운용 범위가 EMU 블록 전체로 확대되어 유럽의 자본시장은 유동성 및 투명성 등의 확보로 자금 출자자와 입수자 쌍방에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로서 더욱 작용할 수 있으며, EMU블록만이 아닌 역외 국가들의 민간 및 공공기관에 의한 유로화 표시 채권의 발행도 증대되어지고, 이에 따라 세계 투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점유하는 유로화 표시 자산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유로화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과의 긴밀도가 깊은 동구(東歐)의 인접 지역에서는 유로화의 사용은 꾸준히 진전되어질 것으로 보이나, 중동, 아시아, 중남미에까지의 확대에는 아직 무리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제1의 채무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시아 통화 위기에서 많은 아시아국가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외환 유동성 위기를 겪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자국 통화인 달러가 국제 결제통화로서 사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 결제면에서 유로화의 사용이 확대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석유 등과 같은 자원이 유로화 표시로 거래된다면 미국은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大債務國인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실추되고, 달러가치의 폭락, 경제 대혼란 등의 정국을 맞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경제문제를 초월한 국가 안전보장상의 문제로까지 비약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정치·외교수단을 동원하여 유로화가 국제결제 통화로서 그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유럽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유로화의 장래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유로화는 자본거래상에 있어서는 국제 통화로서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결제 통화로서는 국제적 장치를 결부하고 있다 하겠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도 유로화의 국제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아

5) European Commission, The Euro: Explanatory Notes, February 1988

유로권의 확대는 한정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로화가 가까운 장래에 국제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로화의 탄생은 달러 지배라는 전후 세계 통화질서에 하나의 쐈기를 박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확실하며, 이에 따라 미국도 적절한 거시적 경제운영의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안정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유로화 탄생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서 C. F. Bergsten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⁶⁾.

'The creation of a single European currency will be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since the adoption of flexible exchange rates in the early 1970s. The dollar will have its first real competitor since it surpassed the pound sterling as the world's dominant currency during the inter-war period.'

Ⅲ. EU 통화통합효과에 대한 개념적 체계와 통화통합전략

유럽위원회는 1990년과 91년에 각각 「One Market, One Money」, 「EMU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두가지의 포괄적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⁷⁾.

두 보고서에서, EMU의 효과에 관한 개념적 체계과 EMU의 비용·편익에 관한 분석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및 90년대에 있어서 EU통화통합에 있어서 사실상의 전략지침이 되었다.

두 보고서에 따르면, EMU의 창설에 의해서 먼저 일련의 제도상의 변화가 발생되며, 통화동맹에 의해서 단일통화의 도입과 유럽중앙은행의 설립이, 그리고 경제동맹에 의해서 단일의 공동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또한 국제제도적 측면에서는, 유로화가 달러, 엔과 함께 국제기축통화로서 三極의 통화체제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는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다시말해서 단일통화의 도입과 유럽중앙은행의 창설에 따라 조정수단으로서의 환율기능이 상실되고, 물가안정 지향적인 금융정책은 회원국간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재정정책에 있어서도 회원국들은 새로운 법률과 책임하에서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이러한 일련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수용하여 가계 및 기업 그리고 금융시장 등의 각종 민간경제 주체의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된다. 그들은 단일통화·단일시장의 탄생이라는 제도상의 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

6) C. F. Bergsten, "The Dollar and the Euro",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7

7) European Commission(1990), 「One Market, One Money」, No. 44, : European Commission(1991) 'The Economics of EMU: Background Studies for European Economy No. 44', 「European Economy」, Special edition No.1(Brussels), pp. 5-60

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국의 재정, 금융정책만이 아닌 제반의 정책사항 그 자체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그리고 EMU의 창설에 의해 야기되는 다양한 효과는 최종적으로 경제정책의 전통적인 세가지의 목표로 나타난다. 그 세가지는 첫째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관한 미시경제적 효율성, 둘째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고용에 관한 거시경제적 안정, 셋째는 구성국간 및 지역간에 있어서 소득과 자원배분의 공정성이다. (<表 Ⅲ-1>참조)

<表 Ⅲ-1> EMU의 제효과

| | 최종적 영향(Impact)의 성격 | 작용의 주요 경로 | |
|----------|--|--|---|
| | | 직접 경로 | 간접 경로 |
| 미시경제적 효율 | · 공동체내에서의 안정적인 생산 및 소득수준 | · 환거래 및 Hedging비용의 절감효과(+) · 환율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감소효과(+) | · 역내시장의 강화(+) · 財貨 및 자본시장의 통합(+) · 투자리스크에 관한 불확실성의 저하(+) · 誘發적 동태효과(+) · 역내 참가국의 Seignorage의 상실(-) · 공공재에 대한 規定의 효과(±) |
| 거시경제적 안정 | · 안정된 Inflation수준후생과 결부된 생산 및 Inflation 수준의 변화 | · 비대칭적인 충격에 대한 조정수단의 상실(-) · 비협조적 환율정책의 감소(+) · 대외금융에 대한 이용가능성 용이(+) | ·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물가안정 정책(+) · 협조적 재정정책(+) |
| 지역적 평등 | · 구성국간 및 지위국간에 있어서의 분배효과 | · 직접적인 미시적·거시적 이익의 공간적 분배(+) | · 초기의 거시경제적 제조조건과 경제전략에 의존한 EMU의 차별적 영향(+) |
| 대외적 효과 | · EU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효과 | · 환거래 비용의 추가적 절약 : 국제적인 Seignorage와 외환보유고의 필요성 저하로부터 나타나는 歲入효과(+) | · 국제간에 있어서 보다 양호해진 정책적 협조(±) · 국제통화제도의 변혁(+) |
| 移行期の 영향 | · EMU를 향한 거시경제적 이행경로의 변화 | · 디스인플레이비용(-) · 재정조정비용(-) | · 실질금리의 저하(+) · 달러/유리환율에 대한 영향(±) |

注) + : 편익, - : 코스트, ± : 불확실

資料 : European Economy, No.44, October 1990. p.50

이 가운데, 미시경제적 효율성에 관해서는 단일통화의 도입에 의해 환거래비용과 환율변동에 따른 환risk 등이 제거되고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자원배분 기능이 역내시장내에서 작용되면서, 그결과 유로권에 속한 국가들은 정태적·동태적 이익을 누리면서 경제성장의 촉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거시경제적 안정에 관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한 유럽중앙은행에 의한 물가안정이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와 더불어 수반되는 투자 유발효과를 통해 EMU는 실업율의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석유위기와 같은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도 EMU하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흡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국가간 및 지역간 자원분배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EMU는 여러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의 부족상황이 현저히 달랐던 지역간이나 국가간의 경제격차의 시정에도 공헌한다.

이상의 설명에서 볼 때 EMU효과의 핵심은 EMU의 창설에 의해 탄생된 제도상의 변화가 각종 경제주체의 기대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EMU의 완성과 안정을 촉구하도록 작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시장메커니즘 그 자체가 어떤 成果와 질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일통화의 도입을 시작으로 의도적으로 야기된 제도적 변화가 각 경제주체의 기대와 행동의 변화를 매개로 한 조정메커니즘의 발동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러한 동태적인 조정 프로세스를 거쳐 EU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진행되게 된다.⁸⁾

그러한 조정과정에 있어서 EMU의 성공여부는 각 경제주체의 기대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보고서는 EMU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각 경제주체의 지나친 낙관적인 기대와 '자기충족적 기대'가 EMU의 성공 및 EU에 있어서 심각한 실업문제 극복의 열쇠가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⁹⁾.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충족적 기대의 강화는 바로 EU 통화통합전략의 핵심과 다르지 않다.

EMU의 최종단계로의 이행일정과 참가조건을 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 (91년 12월)을 기점으로 유로화 도입 일정을 명시한 유로화 도입 시나리오의 확정(95년 12월), 유로권에 있어서의 財政規律을 정한 안정·성장협정의 체결 (97년 7월)을 거쳐, 유로 참가국간의 환율 고정(98년 5월)에 이르는 일련의 결정이 이러한 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EMU의 이행과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EMU의 실현가능성과 그 안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각 경제주체의 조정 촉진을 겨냥한 전략을 이루고 있다. 게다가 EMU의 실현가능성과 안정에 대한 자기충족적 기대의 강화는, EMU뿐만 아니라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구성국 정부와 국민들로 부터 강력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MU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결국 EU 통화통합의 전략은, EMU의 실현가능성과 안정에 대한 각 경제주체의 '자기 충족적 기대'의 강화가 전략적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8) 星野 郁, "EU統合の基本構造", 「世界經濟評論」, 1998. 8. pp.25-28.

9) European Commission(1991), op. cit., pp.56-57

IV. 통화통합과 EU경제

1. 통화통합과 경쟁적 시장의 실현

유로화의 도입은 역내시장 통합전략을 보완하여 유럽에 경쟁적인 시장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유로화의 도입에 의해 일물일가의 법칙이 관철되면 단일의 역내시장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규제를 통한 경쟁제한이 경제의 동태적인 발전을 저지하여 왔으며,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도 시장규제에 의한 경쟁제한과 경제성공과(Performance) 간의 負(-)의 상관관계(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상승)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¹⁰⁾. 현재 유럽에서는 역내 시장통합 프로젝트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부문(또는 공공사업부문)을 비롯한 많은 산업분야에서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제도화된 미국과 비교하여, 전력·에너지 요금, 통신면에서의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럽기업으로서는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고 있다¹¹⁾.

또한 미국에서는ダイ나믹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서비스부문이 신규고용을 산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음에 비하여,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서비스부문에 대한 경쟁제한 때문에 신규고용창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실업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분위기의 조성과 함께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성장분야에의 신규가입의 촉구를 통해서 각종 규제를 철폐시키고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 비약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텔레콤(전기통신)분야에서는 경쟁이 격렬해질수록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최근 EU에서도 텔레콤, 항공수송, 전력, 우편 등 경쟁에 대한 규제가 심했던 분야에서 자유화가 진전되어 경쟁이 격화되면서, 현저한 가격인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로화의 도입은 이러한 경향을 더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EU의 대기업들은 유로화의 도입에 의해 거대한 단일시장이 확실히 탄생된다는 기대감으로, 유로화의 도입과 때를 맞추어서 대부분의 역내국들에 대한 전략적 전개까지도 이미 착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로화의 도입을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준비를 해 둬으로써 장래에 있을 경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전개를 선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EU의 대형금융기관들이다. 그들은 유로화의 도입에 앞서 이미 국내시장뿐만이 아니라 범유럽시장에 대해서도 시장배분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10) Koedjik & Kremers, "Market opening, regulation and growth in Europe", Economic Policy, 1996

11) The Mckinsey, "Capital productivity : Why the US leads and why it matters", Quarterly, 1996. Number3. p.46

있어, 97년 한해 동안만 보더라도 1,070억 달러 상당의 M&A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유럽 전체적으로 행해진 M&A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¹²⁾. 이 과정에서 몇몇의 거대 금융기관이 탄생되는 시장재편성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의 재편 과정은 자동차 산업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까지 실시되고 있어 유로화의 도입에 의한 역내시장의 완성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이러한 전략적 수행 그 자체는 단일시장의 완성(자기충족적 기대의 실현)을 달성한다. 그리고 유로화의 도입을 계기로 지금까지 난항을 거듭해 왔던 세계, 회사법, 회계기준상의 조화 등의 진전도 예상되고 있어, 제도면에 있어서도 경쟁조건의 평준화도 확보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이 해서 유로화의 도입에 의해 탄생한 거대한 단일시장 하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과 경영효율화가 촉진되고, 또한 산업 restructuring이 진전됨에 따라 EU경제의 재활성화와 그것을 통한 신규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통화통합과 유럽의 금융·자본시장

유로화의 도입으로 달러에 필적하는 규모와 유동성을 겸비한 단일의 금융·자본시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우선 자본시장의 규모를 보면, <表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95년말 현재 3.5조 달러(EU 15개국)로 미국의 5.6조 달러에 비해 적은규모이며, 특히 영국이 가입하지 않은 EU 11개국의 경우 미국과의 차이는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채권발행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로화의 출범으로 환 risk가 소멸되어 EU 역내에서의 자본거래가 활발해지면 장차 미국의 규모에 필적하는 규모와 유동성을 겸비한 단일의 금융·자본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연금펀드(Fund)의 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¹³⁾. 현재 EU 각국에는 연금펀드의 운용에 있어서 많은 규제가 남아 있어, 자본시장의 확대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연금펀드의 구성을 보면, 국내채가 70%인데 비해 국외채는 겨우 5%에 지나지 않아 완전히 risk회피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의 탄생으로 EMU 가맹국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연금펀드의 투자 조건을 갖추게 되면, 자금은 국경을 초월하며 이동하게 되어 유럽의 채권시장은 활성화될 것이다. 그 결과 유로 채권시장은 유동성, 투명성 등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게되어 EMU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의 민간·공공기관에 의한 유로화 표시의 채권 발행이 증대될 것이다.

유럽 각국의 주식시장을 단순 합계하면 時價총액으로 5조 달러의 규모이나, 영국이 그중 2조 달러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EMU 11개 가맹국만을 놓고 보면, 미국을 밀도는 규모이다. 또한

12) Euromoney, February, 1988.

13) 中島精也, 前掲書, pp.28-29

유럽각국의 주식시장은 국가에 따라 회계기준, 법적규제, 세제가 다르기 때문에 유로화가 탄생했다고 해서 단순히 거대한 유로 주식시장으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주식시장이 유로화의 탄생으로 활성화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물시장통합의 완성과 함께 통화통합이 실현되는 점에서 유럽내에서의 경쟁조건은 일단 확보되며, 이는 결국 유럽기업들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restructuring을 추진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또한 기업체질의 강화는 주가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일률적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inflation fighter)인 독일 연방은행과 유사한 중앙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금융정책은 유럽의 독일화라고 할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다. 디스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 마땅히 투자처를 잃은 자금은 자산시장으로 이동하기 쉬우며, 유럽 경제는 필히 restructuring과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오늘날 번영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흡사한 경로를 밟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버블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된 미국, 불량채권에 대한 처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 경제위기로 미래가 불투명한 아시아와 비교해 볼 때, 유럽의 우위성이 확연히 드러나며, 따라서 세계의 자금은 유럽으로 이동하여 유럽의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IV-1〉 미국·EU·일본의 금융·자본시장의 규모

| | 外換市場 去來額 億달러/日 (1995년 4월) | 債券發行殘高 國內債(億달러/日) (96년 9월말) | 株式市場 時價總額(億달러) (95년말) |
|--------|---------------------------------|-----------------------------------|-----------------------------|
| EU(15) | 7,785 | 75,614 | 35,267 |
| EU(11) | 2,610 | 62,072 | 19,333 |
| 미 국 | 2,444 | 112,927 | 56,548 |
| 일 본 | 1,613 | 48,620 | 35,453 |

자료: OECD, "Working Paper, No. 174"

4. 통화통합과 역내 기업활동

통화통합의 추진으로 환위험이 제거되면서 역외교역이 촉진될 것임에 따라 특히 환위험 관리능력이 부족한 유럽의 중소기업들은 통화통합의 추진을 계기로 신규사업 및 무역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화통합의 출범은 기업의 투자계획, 마케팅전략, 생산전략, 경영구조 중에서 투자계획의 추진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며, 참가국 중에서는 이탈리아 기업들이 통화통합의 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Ⅳ-2〉참조)¹⁴⁾. KPM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화통합 출범이 기업의 경영구조, 마케팅전략, 생산전략 등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나 독일기업은 통화통합에 대비하여 마케팅 및 생산전략을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Ⅳ-2〉 EMU출범이 기업의 경영전략에 미치는 영향

| | 경 영 구 조 | 마 케 팅 전 략 | 생 산 전 략 | 투 자 계 획 |
|-------------|---------|-----------|---------|---------|
| 영 국 | 2.73 | 3.74 | 3.70 | 4.62 |
| 프 랑 스 | 3.15 | 4.74 | 4.55 | 4.00 |
| 독 일 | 3.98 | 6.04 | 5.19 | 3.84 |
| 이 탈 리 아 | 6.62 | 6.72 | 6.17 | 4.90 |
| 베 네 룩 스 3 국 | 3.47 | 4.57 | 4.44 | 6.93 |
| 스 칸 디 나 비 아 | 3.43 | 4.91 | 4.44 | 4.51 |
| 기 타 E U | 3.46 | 4.08 | 3.92 | 5.14 |
| 전 체 | 3.52 | 4.86 | 4.51 | 5.58 |

자료 : KPMG

주 : 유럽의 301개 기업을 대상으로 10점 척도에 의한 설문결과이며, 10점에 가까울수록 각 기능들이 통화통합 출범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의미함

통화통합이 기업 활동에 가져다 주는 이점으로서 첫째는 영업비용의 삭감을 들 수 있다. 즉, EMU 참가국 통화간에는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환전 수수료는 물론 환전업무와 관련된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유럽위원회는 기업의 社內비용의 삭감 효과에 대해 EU 역내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4%에 상당하는 것으로 試算하고 있다¹⁵⁾. 둘째로는 자금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기업은 현행 통화의 종류에 따른 많은 은행 구좌를 개설하고 있으나, 통화가 단일통화로 통합되면, 이러한 구좌들을 몇 군데의 은행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세번째로는 통화통합에 의한 금리인하의 메리트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즉, 환risk·premium에 상당하는 많큼의 금리인하가 기대된다. 네번째로는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수익의 불확실성이 감소되므로 투자계획 등의 각종 경영계획의 입안이 수월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통화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컴퓨터·시스템 변경 등 유로화 도입에 대한 대응비용이 크다 하겠다. 이는 유로화의 도입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가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매우 뒤쳐져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유로화로 전환이

14) 신용대·이영주, 『EMU 출범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1998. 10. pp.25-27

15) European Commission(1990), op.cit., pp.5-60

행해지는 시기에 세무 및 회계 등 장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한 예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換이나 금융상품을 유로단위로 전환시킬 경우 '評價益이 없는 상황에서 評價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制度面에서 서로 다른 整合性이 유지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96년 3월 더블린 정상회의에서 유로화의 법적 체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의 계속성이 보장되었으나, 계약 당사자가 EU역외의 소속이거나 계약준거법이 EU역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통화통합이 주는 보다 중요한 Implication은, EU역내에서의 경쟁이 한층 더 강화된다는 점이다. 92년 말 유럽시장 통합의 완성으로 사람, 물건, 서비스,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했던 각종 장벽이 철폐되었다. 통화통합은 시장통합의 목적인 유럽경제의 경쟁체질의 강화를 보다 확실히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통화통합이 실현되면 통화절하를 통하여 약화된 경쟁력을 보완하려는 안이한 방법이 더 이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경쟁조건이 정비되게 되므로 경쟁이 격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기업으로서는 생사를 건 연구개발투자의 추진, 국제적 생산거점의 재검토, 신규시장의 개척, 그리고 기업 자체 내에서의 구조개혁 등에 신중히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기업합병 등 업계재편의 움직임도 가속화되어진다. 단, 경쟁의 격화에 의해 우열이 확실히 드러나고, 실업의 지역적 편재라는 사회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97년초 프랑스의 자동차 메이커인 르노는 벨기에에 소재한 공장을 폐쇄하여 스페인으로 생산시프트(Shift)를 이행할 것을 발표하여 큰 화제가 되었었다. 이러한 문제는 최적통화권 이론과도 관련되나, 이는 곧 노동의 이동, 임금의 신축성, 역내 차원에서의 소득 재분배 가운데 어느 것이든 그 조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해결은 비교적 용이해진다. 그러나 EU 11개국들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공통된 견해이다. 이러한 실업의 지역적 편재는 통화통합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직적인 대륙의 노동시장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조치일지도 모른다.

5. 통화통합과 실업문제

〈表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평균 실업률은 90년에는 8.4%까지 저하됐지만, 91년 이후 서서히 상승해서 94년에는 11.1%까지 상승했다. 유럽의 高失業의 주된 원인으로 노동원가의 하방경직성 및 엄격한 취업규칙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97년도 실업률이 10%, 프랑스는 12.4%의 실업률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EU회원국인 영국의 실업률은 93년 10.5%에서 97년 7%까지 3.5포인트로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이 두 나라에 한정하면, 영국의 고용상태는 개선되고 있고, 독일은

악화되고 있다 하겠다(〈表 IV-3〉참조).

영국의 고용개선과 독일의 실업률 상승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¹⁶⁾, 우선 영국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여성 기혼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이 파트타임으로서 고용되면서 결과적으로 실업률의 저하를 가져 왔는데 영국의 이와 같은 실업률 저하 및 고용개선은, 80년대의 Thatcherism¹⁷⁾에 의한 노동시장에서의 규제완화가 90년대에 그 결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실업률 특징을 보면 영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즉, 독일의 실업은 남성고령자의 화이트칼라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구동독과의 통일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결부되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높은 실업률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여성의 고용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영국과 비교해 볼 때 독일에서는 영국과는 달리 서비스산업 등이 고용 확대에 기여하지 않는 면이 크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은 서비스 산업에 관련한 다양한 규제, 예를 들면 주말(토요일, 일요일) 영업 금지와 노동시간의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노동 코스트의 문제, 여성취업과 파트타임 등과 관련된 노동문제들이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表 IV-3〉 주요국의 실업률 (%)

|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
| 미 국 | 5.4 | 5.2 | 5.4 | 6.6 | 7.3 | 6.9 | 6.1 | 5.6 | 5.4 | 4.9 |
| 일 본 | 2.5 | 2.3 | 2.1 | 2.1 | 2.2 | 2.5 | 2.9 | 3.1 | 3.4 | 3.4 |
| 프랑스 | 10 | 9.4 | 8.9 | 9.4 | 10.4 | 11.7 | 12.3 | 11.7 | 12.4 | 12.4 |
| 독 일 | 6.2 | 5.6 | 4.8 | 4.2 | 4.6 | 7.9 | 8.4 | 8.2 | 8.9 | 10 |
| 영 국 | 8.6 | 7.2 | 6.8 | 8.7 | 10.1 | 10.5 | 9.6 | 8.7 | 8.2 | 7 |
| E U | 9.9 | 9 | 8.4 | 8.6 | 9.4 | 10.7 | 11.1 | 10.7 | 10.9 | 10.7 |

자료: OECD, Quarterly Labor Force Statistics, 각호

독일에서의 높은 노동코스트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서 독일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와 함께 국내에서의 실업률 상승을 가져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¹⁸⁾.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의 66%정도는 EU역내 또는 유럽국가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어, 만일 유로화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환리스크가 소멸됨에 따라 독일의 다국적기업은 통화통합의 메리트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로화의 도입은, 독일의 해외직접투자를 현재 이상으로

16) 相澤辛悦, "EU通貨統合とドイツ", 『世界經濟評論』, 1998. 10. pp. 8-16

17) Thatcherism 이후의 노동정책은 Closed Shop(노동조합원만을 고용하는 사업소)제의 제한, 최저임금제 폐지, 여성의 취업과 노동의 제한 폐지, 실업수당의 제한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8) 代田 純, "EU通貨統合と英獨の失業問題", 『世界經濟評論』, 1998. 11. pp. 32-42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독일의 노동 코스트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진다. 노동조합이 노동코스트 인하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독일의 실업문제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만일 노동코스트에 대한 인하요구를 거부한다면, 독일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실업률을 한층 더 상승시킬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해외직접투자는 EU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 도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독일의 다국적기업들은 큰 메리트를 누리게 될 것이며, 동시에 국내 노동 코스트에 개혁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에서도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는 1991년에 1,241억 파운드에서 1995년에는 1,954 파운드로 연 12%의 높은 증가율로 상승하고 있다. 노동코스트가 높지 않은 영국에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배경과 관련하여, 영국의 해외투자 잔고의 지역별 내역을 살펴보면, 1991년에는 EU가 343억 파운드(구성비 27.7%), 미국이 454억 파운드(구성비 36.6%)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비중이 높고 유럽의 비중은 낮다. 이것은 영국이 통화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한 가지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90년대 초에는 유로화의 도입이 갖는 메리트는 다국적 기업이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독일에는 크지만, 다국적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영국에는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 영국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를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EU에 대한 영국의 해외직접투자잔고는 710억 파운드(구성비 36.3%)이고,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잔고는 616억 파운드(구성비 31.5%)로, 절대액에서도 구성비에서도, EU가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현재 영국의 다국적기업이 EU를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영국은 통화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영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장래의 영국의 통일통화에 참가할 것을 예측하고 급속히 EU에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하겠다.

이처럼 노동코스트가 독일과 비교해서 낮은 영국에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EU 통화통합에서 배제된 영국의 다국적기업들이 EU와의 관련을 급속히 강화시키면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EU통합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파트너십(partnership)의 경제관계에서 영국과 EU(독·불)의 파트너십(partnership)의 경제관계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이 직접 통화통합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실업률의 저하 등 거시 경제지표가 현재 호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유로화에의 참여라는 리스크를 무릅 쓸 필요성이 적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국민감정상 영국의 독자성을 존중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의 해외직접투자잔고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영국은 급속히 EU으로의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고 있고, EU와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통화통합에의 참여는 유로화의 첫 출발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한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V. 결 론

본연구는 유럽통화통합의 완성 즉 유로화의 탄생이 세계통화질서에 대해 끼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의미와 함께 그것이 어떠한 구조적 경로를 통해서 EU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전망하고자 하였다.

유로화의 출범은, 미국에 버금가는 대외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일통화의 경제권을 형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달러 지배라는 전후 세계통화질서에 하나의 썩기를 박았으며,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유로화 탄생의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여기에 EU 통화통합의 성공과 안정에 대해 EU의 각 경제주체들이 갖는 '자기충족적 기대'는 EU경제의 근본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물가안정, 산업 Restructuring, 실업률의 저하 등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궁극적으로 EU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참 고 문 헌

- 손병해, 「경제통합론」, 법문사, 1988
- 신용대·이영주, 「EMU 출범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1998.
- 10
- 이종원·이갑수, 「유럽경제론」, 법경사, 1997
- 이종원의 3인, 「국제지역경제」, 비봉출판사, 1996
- 한국비교경제학회 편, 「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박영사, 1996
- 한국은행, 「EU의 통화통합진전과 관련한 최근의 논쟁점 및 전망, 보고서」, 1995.10
- 岩田建治, 「歐洲金融統合 - EECから市場統合完成まで-」, 日本經濟評論社, 1996
- 中島精也, 「EU通貨統合をぐる最新の情勢」, 「世界經濟評論」, 1998.7
- 田中素香, 「通貨統合への道を進むEU」, 「世界經濟評論」, 1996.12.
- 相澤辛悅, 「EU通貨統合とドイツ」, 「世界經濟評論」, 1998.10.
- 星野 郁, 「EU 通貨統合の 基本構造」, 「世界經濟評論」, 1998.8
- 代田 純, 「EU通貨統合と英獨の失業問題」, 「世界經濟評論」, 1998.11.
- Bean. C.R., "Economic and Monetary Union in Europ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6, No.4, 1992
- Bergsten. C. F., "The Dollar and the Euro",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7
- De Grauwe. P., The Economics of Monetary Integration, Oxford University, 1992
- European Commission, One Market, one money, European Economy, No.44, 1990.
- _____ , "The economics of EMU : Background studies for European Economy ", European Economy, special editon No.1(Brussels), 1991
- Giersch, H. The world Economy in Perspective : Essays on International Trade and European Integration, Edward Elgar, 1991.
- KPMG Management Consulting, "Europe's Preparedness for EMU", Research Report, 1997
- Morsink. R. & Mole. W., "Direct Investment and Monetary Integration"., European Economy, special editon, No.1, 1991
- Papadia. F & Saccoumanni. F. "Europe's stubborn quest for Monetary Union", Thirsty Years of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Longman, New York, 1994.
- European Commission, The Euro : Explanatory Notes, February 1988.